

## 신의 계시는 진실에 토대를 두고, 진실은 깨끗함과 두려움 없음에 토대를 둔다

오늘 밥다다는 그의 자녀들 모두를 샅티와 판다바 군대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장군은 그의 군대를 보며 행복하고, 또 마하라티(코끼리를 타는 자)들과 기병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역시 보고 있다. 마하라티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양쪽 모두 고유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드라마에 따라 너희들 각자가 연기해온 것은 뭐든 등수대로 좋았다고 일컬어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너희 마하라티들은 어떤 용맹을 보여야 하느냐? 밥다다는 특히 마하비르들과 마하비르니(여성 마하비르)들의 봉사의 역할을 보고 있다. 너희들은 봉사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진군했느냐? 군의 장성은 군대가 얼마나 많이 진격했고 얼마나 넓은 지역을 정복했는지 보려고 끊임없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 자기 군대가 무기와 탄약과 장비들을 얼마나 많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미래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까지는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속도로 진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것처럼 밥다다도 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봉사의 지도를 지켜봐 왔다. 그가 무슨 결과를 보았겠느냐? 그는 마하비르, 마하비르니인 너희들이 봉사의 현장에서 진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무기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점령지역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렇긴 하되 너희들은 영혼의 폭탄들만 투하해왔고, 아직 신이라는 폭탄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때에 따라서 등수대로 영적인 행복, 영적인 평화, 영성의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의 폭탄들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종의 폭탄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폭탄이다. 너희가 누구를 보든, 누구와 접촉하든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해라. 전능한 권위자의 직접 과업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 궁극적인 폭탄을 통해서 소리가 모든 곳에 퍼질 것이다. 이 과업이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언제 어떻게 달성하려느냐? 신을 드러내는 토대는 진실이며, 진실이 바로 계시다. 하나는 너희들 자신의 단계의 진실됨이고, 또 하나는 봉사의 진실됨이다. 진리의 토대는 깨끗함과 두려움 없음이다. 계시는 이 두 가지 특질을 혼습함으로써, 진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만일 어떤 종류든 불결함(부정직함)이 있으면, 즉 진실이나 정결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계시의 과업에서 성공하도록 허락지 않을 것이다.

진실과 청결함: 진실이란 너희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너희들 원래의 사토프라단한 형태에 한결같이 안정해 있다는 뜻이다. 라조 단계도 타모 단계도 너희들 본연의 진실한 단계가 아니다. 그런 단계들은 동반자의 영향에서 생긴다. 누구의 동반이냐? 마야, 라반의 동반이다. 영혼의 진실한 단계는 그의 사토프라단한 단계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진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말과 행위에 사토프라단한 단계가 있어야 한다. 너희들의 말과 행위에 아직도 라조 단계와 타모 단계가 섞여 있느냐? 너희의 산스카르들에 자연스럽게 진실이 들어 있느냐, 아니면 노력함으로써 너희가 이 진실의 단계를 불러와야 되느냐? 아버지가 진리라고 불리는 것처럼 영혼의 진짜 모습도 역시 진실의 형태다. 진실은 사토프라단한 단계다. 너희는 그러한 진실을 가지고 있느냐?

청결함: 만일 너희가 불순한 것을 만지거나 불순함, 결함, 약간이라도 나쁜 것을 비록 생각으로라도 취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깨끗함이 완전치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더러움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어떤 종류의 더러움이든 피하듯이,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 귀 기울이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깨끗함이란 너희 생각 속에 불순함이 아주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진실과 청결함이라고 한다.

두 번째 측면은 두려움의 측면이다. 두려움 없음의 정의도 역시 매우 깊다. 첫째로는 너희들의 낡은 타모구니 산스카르들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산스카르들은 아주 강력한 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태도가 아니다. 남들을 대할 때 너희의 산스카르들과 그들의 산스카르들을 조화시켜서 그 산스카르들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는 만일 너희가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너희 말을 남들이 받아들일지 겁내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완전히 두려움 없는 태도는 아니다. 셋째로 분위기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의 강한 원칙들을 보면서 봉사 현장에서 그들의 힘이나 분위기에 약간이라도 영향 받는 것도 역시 일종의 두려움이다. 뭔가 망쳐질 테고 그 결과로 격변과 혼돈이 예상될 때도 너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밀동인 너희에게서 나온 그 가지들, 영혼에 대해 약간의 지식밖에 없는 자들이 그들의 일시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 없을 수 있다면, 그들은 제한된 지각을 갖고서도 진실을 증명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서, 거짓인 것을 진리라고 증명하는 데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거늘, 너희가 전능한 아버지의 고귀한 지시들과 그의 원래의 영

원한 진실을 드러냄에 있어 망설인다면 그것은 곧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가지들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밀동은 흔들림이 없다. 가지들은 두려움이 없는데 도리어 밀동이 겁을 내며 망설인다면, 그것을 너희가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계시의 토대인 너희의 청결함과 두려움 없음을 이제 점검해라. 이를 두고 진실이라고 한다. 이 진실을 기반으로 계시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까지는 신을 드러내는 최후의 강력한 폭탄이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라자 요기 영혼인 너희들이 고귀하고, 라자 요가가 고귀하고, 너희의 과업이 고귀하고, 너희의 변화가 고귀하며,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렇긴 하지만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 전능한 권위자라는 사실과, 지식의 태양이 물질세계에 떠올랐다는 사실은 아직도 은밀하다. 신의 이 폭탄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느냐?

세상 모든 영혼들의 제한적인 지원들은 전부 끝날 것이고, 그들은 한 분 아버지가 자기들의 지원임을 경험할 것이다. 과학의 폭탄들이 사용되면 나라들이 통째로 완전히 파괴되어 처음의 모습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폭탄을 통해 너희들의 영적 노력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들은 끝나고, 라자 요가라는 정확한 수단을 통해서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드러날 것이다. 세계의 아버지가 온 세계에 매우 뚜렷이 보일 것이다. 모든 종교에 속하는 모든 영혼들에게서 “이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다”라는 똑같은 말이 나올 것이다. 힌두교도들의 아버지나 회교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다. 이를 두고 신의 폭탄을 통한 최종적인 계시라 한다. 자, 이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와,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이해했느냐? 올해는 신의 폭탄을 투하해라. 너희들의 깨끗함과 두려움 없음을 토대로 진리의 계시를 가져와라. 앗차.

그런 아버지를 세계 전체에 드러내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두려움 없고 끊임없이 한 가지 관심에만 몰두한 채 변함없이 도취되어 있으면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쉬운 라즈 요기들에게,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 불러오는 자들, 즉 모든 영혼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자들에게, 아버지처럼 자비와 온정의 대양인 자들에게, 그렇게 자비로운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끊임없이 고귀한 행운을 칭송해 노래 부르고 있느냐? 신이 친히 칭송의 노래를 불러주는 참으로 높은 행운을 너희가 받는 일이 있겠느냐? 만일 지금 이 행운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앞으로 영원히 그것을 못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행복을 경험하느냐? 모든 이의 주의가 자동적으로 자녀인 너희들의 광채에 끌리며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도록 너희 행운의 별이 끊임없이 반짝이게 해라. 자녀인 너희들의 이마 가운데서 행운의 별이 끊임없이 반짝이면, 세상 모든 이들의 눈길이 저절로 너희들에게 쏠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슨 행운의 별인지 놀랄 것이다. 특별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날 때는 모든 이의 주의가 자동적으로 그것에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운의 별의 광채가 모든 이를 끌어당기게 해라. 빛나는 별은 너희들에게도 보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한다.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너희의 눈길을 끌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비록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그들의 시선은 결국 너희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너희는 이 정도로 빛나는 행운을 경험하느냐?

지금 이때의 고귀한 단계의 결과는 사이클 전체에 걸친 고귀한 지위다. 지금 이때에 고귀한 단계를 가진 자들은 고귀한 지위를 받을 것이다. 숭배받을 가치 있는 형태로 그들은 온 세계에서 최고로 고귀한 자들일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고결할 것이고, 신봉의 길에서도 그들은 고귀할 것이며, 또 지식에서도 역시 그들은 고귀한 왕국을 통치하는 고귀한 자들일 것이다. 그들이 연기하는 모든 배역이 각각 다 고귀하므로 그들은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영혼으로 그들 자신을 경험한다.

**축 복:**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지고, 왕족다움과 소박함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라. 아버지 브라마가 너무 높지도 않고 지나치게 낮지도 않고 평범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브라민들의 규율은 완전히 단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왕족답지도 않았다. 그것은 중간 수준이어야 합당하다. 지금은 편의시설들이 많고 또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것을 중간 수준이 되게 해라. 여기에는 왕족다운 화려함이 있다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단순하면서 왕족답게 머물러 있어라,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해라.

**슬로건:** “남들을 보지말고 너희 자신을 보며, 내가 뭘 하든 나를 보는 남들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 움 산티 OM SHANTI \*\*\*